

가정예배 안내서

8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8

가정예배 안내서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생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생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8. 중현의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94 예수사랑 큰 잔치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충현의 만나

1994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레미야서 서론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한 때였다. 당시 신흥 바벨론은 메대와 연합하여 앗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켰고(주전 612년), 주전 610년에는 하란을 탈취하여 앗수르 왕국을 붕괴시켰다. 바벨론은 주전 588년에 유다를 침략하여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장악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그가 소명받은 때부터 주전 580년경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0여년간 예언활동을 했다.

예레미야서의 첫부분(1-39장)은 유다왕국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40-5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인해 실의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 중에는 유다 산간지방에 숨어 있던 자들(40-43장)과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44장)이 포함된다.

예레미야서의 핵심구절은 2:14-17과 4:23-28이고 주요 낱말은 ‘심판’이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사랑의 영원성’이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는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 ‘의로운 가지’와 ‘새로운 가지’, ‘새로운 언약’을 알렸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1

(월) 말씀대로 삽시다

찬송 / 399장 본문 / 렘 25:1-11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25:5)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1-3),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4),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5), 격동하시는 하나님(6-7), 심판하시는 하나님(8-11)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말씀에 청종하며 귀를 기우려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우리의 귀를 기우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여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다운 순종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끝으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는 우상숭배가 우리 속에 깃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열국에 지배를 당하게 됨을 잊지 맙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 』(25:29)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을 벌하시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거나 개인이거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의 강포함과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본문에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임하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첫번째 대상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죄악이든지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김창인 목사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 너희 목자들이 외쳐 애곡하라 』(25:34)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크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땅까지도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분토와 같이 버려지고 황폐케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는 자가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작은 기회를 선용한 자는 더욱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무 늦게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민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안한 가정마저도 적막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여 참된 평안을 얻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전함을 주시고 목양사역 위에 일곱배의 권능을 주소서.

『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26:2)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제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증거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허무하고 허망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디어진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흘렸던 눈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회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 6:6)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심어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라기까지 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열심을 투자한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열심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열심을 말함에 있어서 개미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같이 열심을 다하는 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환란이 일어난다고 할찌라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개미의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며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든 자원하여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자가 추수 때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책임을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꾸중만 들을 뿐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성전을 삼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것에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와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 기도 /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핑계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렘 26:19)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을 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를 하였지만 스테반의 설교를 들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발에 따라서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이고 다른 사람은 우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를 추적하여 잡아 죽인 여호야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과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았기에 하나님의 재앙에서 돌이킴을 받았지만 우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서 갔던 여호야김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지만 마음을 견고히 하여 완악하게 갖는 자에게는 생명이 끊어지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 기도 / 교만히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힘은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지식의 힘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주고, 권력의 힘은 서민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힘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성도는 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날에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쳐부수어 주셨고 우박을 보내셨고 숯불이 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며, 영원한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풍랑 뒤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 직원들이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 』 (27:10)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이 메는 멍에를 메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의 목에 줄과 멍에를 얹게 되었습니다(2절).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연장하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전쟁과 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자존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은 꺾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앞세우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어 보다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민족이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 』(27:17)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빨리 항복하여 목숨만은 살아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합니다(15절).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양 착각하여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진리가 전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진실은 당장에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진실은 당장은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아름다운 약속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해서 모두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죄악으로 망해가는 인생들에게 진실을 증거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게 하소서.

『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 』(28: 15)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판적이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것도 잘못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렘 25:11)이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냐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받아들입니다(6절).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에 계속하여 예레미야를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고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를 외치기 보다는 피할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잘못된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의 귀만 만족되면 아무런 비판 작업없이 수용하는 폐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히 받는 자세는 필요하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거짓되고 어리석은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도와주소서. 찬양대원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소서.

『……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29:10)

징계는 죄악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없는 연민 곧 사랑이 깊이 담겨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본문 10절에서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시한을 정한 징계를 생각할 때 이는 다만 사랑의 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징계의 순간에서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징계의 날이 차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10절).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회복의 날을 예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징계 가운데서도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시 50:15). 둘째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13절). 징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은 전심을 기울여 찾아야 합니다. 이는 철저한 회개를 수반한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 기도 /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교구의 식구들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2)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의 소유입니다(2, 3절). 지혜의 소유는 모든 행위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영적인 지혜는 ‘의’, ‘공평’, ‘정직’ 등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딤후 3:15-17; 딤후 2:11, 12). 둘째,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읽는 자마다 변화된 삶을 살되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을 슬기롭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혜로운 자는 더욱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셋째, 특별히 본문은 무엇보다도 참 지혜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잠언 전체의 핵심인 동시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인간의 온전한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근간이 됩니다(전 12:13).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 지혜와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천국 백성들을 모두 찾게 하소서.

『…… 내가 칼과 기근과 열병을 그들에게 보내어……』(17)

본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칼에 의한 심판입니다. 17, 18절에 ‘내가 칼과……’라고 하신 말씀은 곧 무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본국에 남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무력을 통한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역사상에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칼의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왕하 25장). 둘째는 기근의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왕하 8:1). 이 기근의 심판이 본국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하여지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위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셋째는 열병의 심판입니다. 본문에서의 ‘열병’은 흑사병으로 ‘과괴’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병은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민 16:49).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병을 유다 민족 중 본국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17, 18절). 실제로 본국에 남아 있다가 애굽으로 도피한 유다의 잔민들에게 열병의 형벌은 내려지고야 말았습니다(렘 42:17).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새기면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죄악과 타협하는 순간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죄치 않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가 모두 열매 맺게 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18:50)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그의 한 평생 동안 느끼고 체험하며 감격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하면 ‘큰 구원’ (50절)이란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을 철저한 환란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빛나는 성군으로 추앙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한 평생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그의 삶을 수 놓아 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다른 원수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번영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같은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와지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현지인과 회교도 선교 및 개척교회 사역이 열매 맺게 하소서.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29:32)

본문은 바벨론에서 온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의 예레미야에 대한 모함의 편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유다에 있는 종교 관리에게 편지하기를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거민들에게 포로 기간이 오래 지속될 터이니 귀환할 것을 단념하고 정착할 준비를 하라고 한 것에 강한 저항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나가 예언한 ‘조속한 귀환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26절)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 스마야의 편지는 성도에 대한 사탄의 모함을 상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에 대한 이단의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양심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쪽은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운 인정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실행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 기도 /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는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없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가 앞으로 전개할 삿뽀로에서의 사역 위에 함께 하소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30:3)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켜 주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속적인 효과와 보편적인 전파를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역을 예고하시고 성취하시고 또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포로된 지 70년이 경과된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약속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계획과 예정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기다릴 줄 아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자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써 기다림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푸랑트푸르트교회와 비스바덴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30:12-17)

본문에서 언급된 야곱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의 상처는 죄 값으로 받는 형벌이니 고칠 수 없고 송사를 변호할 자도 없고 그 상처를 싸매 약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을 지지하던 이방나라들도 다 물러갔고 전혀 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고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낫게 하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설혹 징계가 있다고 해도 낙심치 말아야 하며 신속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자라이브닝마주이교회의 예배당 및 종합선교센터 건축과 수단 난민선교를 도와주소서.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하겠고 …… 』(31:13)

이스라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진실함을 위해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범죄했던 그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들에는 다시 결실을 거두게 되겠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던 파수꾼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자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마치 목자가 흩어진 양무리를 불러 모음같이 그들을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큰 기쁨으로 가득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생활이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처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나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9:19)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감으로 항상 불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선수로서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경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면서 살고 항상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도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유하였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므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즉 자신이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 그들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것같이 하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 그들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권리 포기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 어떠한지 관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애썼습니다. 권리를 앞세우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더욱 겸손하며 절제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 쓰며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 기도 /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언어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31:18-20)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18절).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서도 핑계하거나 자기 자신에 아첨하는 자는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되이 스스로를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회개가 아니라 죄악을 끊고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던 탕자가 돼지 틈 사이에서 고통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18절). 사실상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회개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응답이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도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에게 마음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성도 중심으로 돌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과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 기도 /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가 언어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홍콩현지교회와의 협력 사역 및 광주, 심천 지역에서의 양육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19:10)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은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뒷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죄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바라볼 때 그 오묘막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과학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10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최고의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는 것입니다. 송이꿀은 정말로 달디 단 것이고 최고의 영양이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도 더욱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을 때요 순종할 때 그 맛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영육의 삶이 참으로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 기도 /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 외향선교, 유학생선교가 열매맺게 하시고, 전도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31:33)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변해 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중심보다는 의례히 나오는 것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중심내용 보다는 기도하는 태도 등을 더욱 귀히 여겼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죄로부터의 구원인 영적인 구원에 치중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외형적인 구원에 치우쳐 결국에는 참 메시아를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음의 칼로 아로 새기고, 아멘의 붓으로 깊이 그려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낼 것이고 그의 인격으로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은히 흐르고 하늘의 소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란과 핍박을 견디어 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기도 / 추하고 약한 심령에 주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돕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31:38)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장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쪽 유다도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속에 내 율법을 기록해 두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는 깊은 의문에 사로 잡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이래로 지금까지 수 백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며 전했지만 이 땅에 율법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었고 그 결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분명하게 보증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되 깨끗한 곳, 경건한 사람만 회복시키시지 않고 죄인들의 시체를 버리는 골짜기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적군에게 완전 포위되어 언제 함락될는지 알지 못하는 성안에서 적군과 내통하고 유언비어로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왕궁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외부 정황으로 볼 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고 포로가 된 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유다 땅에서 땅을 사고 팔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땅을 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을 보여주었고, 또 백성들에게 그같은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다른 이유 전혀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 기도 /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32:25)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멜의 땅을 샀습니다. 시위대 감옥 앞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7-25절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슬픔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그 결과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25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있게 증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대 일로 설 때에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신앙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이며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메꾸지 못할 간격이 있을 때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다. 예레미야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다.

▶ 기도 /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주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 (9:15)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고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였고 사울은 다시 눈이 보이면서 강건하여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식주를 비롯한 직업, 학교 등 여러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사울처럼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디든지 다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명을 위하여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장애인들에게 삶의 비전과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32:41)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였으며, 그런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두 번 실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옛부터 항상 악한 일만 계속해 왔습니다(30, 31절). 이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골적으로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기저기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쫓아보내셨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이들을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37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41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던 그 사랑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로서 그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롬 8:12-17).

▶ 기도 /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와 긍휼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여주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평화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 』(20:7)

본문은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맹장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였는데, 그가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원하노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3절)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4절)입니다. 즉 생각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있는 바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와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병거나 말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여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 이름이 마침내 인간적 수단보다 더 능력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 기도 /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속히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33:6)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후의 축복된 삶을 선언하고 있는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기쁨과 풍요가 넘쳐 흐르는 상태로 만들어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품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멸될 운명에 놓여 있는 민족을 복구시킬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32:24-25).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힐지라도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입 이후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들(애 1:1-4)은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꽂차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당했던 유다의 성읍들은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양무리에게 안전한 초목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의 해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복락이 발생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스 3:10-13). 이러한 기대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다듬어 나가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도는 모든 세상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등 모든 면에 안정과 발전을 주소서.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33:16)

본 단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지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받게 될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서 마침내 지극히 의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도록 이끄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결과로서 드러난 포로 생활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계승을 통해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드러냅니다(15-18절). 사실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부활이 멸망 이전에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포로지에서 참된 언약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멸망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직, 제사장직이 완성된다는 교훈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성도는 온전한 기쁨과 안전을 향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34:18)

하나님께서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동족을 노비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출 21:2-11).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 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술책으로 노예 해방 정책을 시도했습니다(8-10절).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났을 때(37:5) 이전에 맺은 율법에 대한 서약을 휴지 조각처럼 저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율법적 행위는 심판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을 사랑하실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입각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17-22절). 언약을 깨뜨린 유다는 그들의 시체가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7:33; 15:3; 16:4). 시드기야와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는 당시에 잠시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했으며 엄청난 파괴와 방화와 살육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파기는 철저한 파괴와 멸망과 황폐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언약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9월에도 함께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가족 공동체

· 본 문 : 고전 13:4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

· 찬 송 : 278장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를 건물, 성전, 밭, 몸 등으로 비유하곤 하였다. 특히 그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비유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가? (갈 4:6)

2. 성도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롬 8:14-17)

3. 성도는 서로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엡 2:19; 롬 12:4-5)

4.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였나? (고전 8:11, 13, 몬 7, 빌 2:25)

5. 바울은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불렀나? (몬 10)

6. 바울은 여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몬 2, 롬 16:1)

7. 이런 가족관계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고전 16:24, 4:21:살전 3:12:롬 12:9-10)

8.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에 관하여 정의를 내려보라.

9.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사랑이 인간에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자.

10. 구역식구 각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본문과 비교하여 보면서 참 사랑의 언행이 아니었던 귀절을 써보도록 하자.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사랑의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서 자신의 결심을 써보자.

	이름	성경구절	구체적인 잘못된 언행들
예)	김하나	성내지 않고	남편 때문에 괜스레 김 집사께 통명스럽게 대함

** 나의 결심:

제 2 과

가족 공동체의 교제

· 본 문 : 빌 1:3-5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
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

· 찬 송 : 323장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
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바울은 기존의 교제양식에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여 기독교적 표현 양식을 이루었다. 교제의 실제적 요소는 무
엇인가? 여기서는 식사와 문안과 소유의 나눔을 생각해 보자.

1. 고린도전서 11:17-34을 성례전이 아닌 ‘교제로서의 식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2. 고린도전서 16:20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3. 고린도후서 8:9, 10 소유의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4. 살펴 본 세 종류의 교제의 영역을 생각하며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 보자. 구역 공동체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된 요소들도 서로 솔직히 논의해 보자.
자신의 결심과 구역 공동체를 위한 제안도 써 보자.

· 교제로서의 식사에 관하여 :

· 기록하고 간절한 문안에 관하여 :

· '나눔정신'의 실천에 관하여 :

· 나의 결심 :

· 구역을 위한 제안 :

제 3 과

다양성과 조화

· 본 문 : 갈 3:26-28

『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
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

· 찬 송 : 356장

한 가족으로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계층과 성품과 독특성이 공존한다. 이
상황에 대처하는 첫 걸음은 우리가 방관자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활
동적 인 참여자라는 사실이다.

초대교회에는 남녀의 차별, 자유인과 비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식
자와 무식자 등과 같은 많은 다양성과 이질적 요소가 있었다.

현재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들을 극복
하고 온전한 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노력은 사실을 인정하고, 간격을 이해하며, 그리고 사랑의 마
음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의식에서 시작한다.

1. 우리 구역식구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가진 독특한 개성과 장점과 단
점을 써 보라(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관점이며 여기에는 편견과 오해
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써보자).

* 이제 나의 태도를 분석해 보자. 혹시 나의 관점이나 성품에는 문제가 없을까? 위의 기록을 자신에 대한 솔직한 분석과 비판의 자료로 생각하도록 하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4. 그러면 우리 구역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이질적 차이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해 보자.

이름	내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제 4 과

차별없는 책임

· 본 문 : 롬 10:11, 12

『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

· 찬 송 : 359장

현대 기독교의 공동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과 오해들이 있다. 이 장벽들로 인해 참 공동체의 모습이 흐려지고 원활한 교류가 방해받고 있다. 특별히 어떤 영적, 세속적 특권이나 계층의식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할 요소이다.

1. 기독교 공동체에 제사장(성직자)과 평신도의 차별이 있는가? (벧전 2:5, 9) _____

2. 직분자와 비직분자 사이에 차별이 있는가? _____

3.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은 가능한가? (고전 12:1-3; 엡 2:11-19; 고전 3:16; 고전 12:4-11) _____

4. 그러면 어떤 구별이 가능한가? (롬 14:1-15:7; 갈 6:2)

5. 조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전 14:40; 16:1)

6. 지체들의 육적 필요와 복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전 12:25-27; 빌 2:4; 살전 5:11; 행 2:45; 4:35)) _____

7. 성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전 14:26-33; 롬 15:14; 골 3:16)

8. 혹시 내가 가졌던 특권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해 보라.
우리 구역에 존재하는 이런 차별은 없는지 토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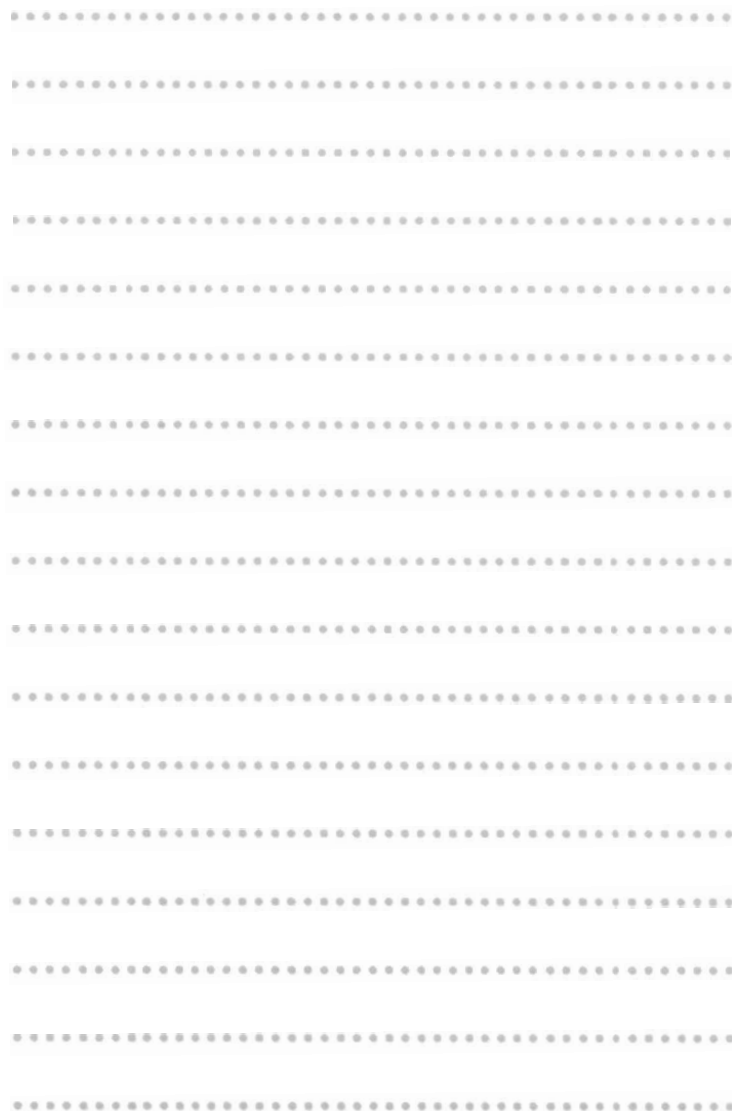
9. 다음의 항목에 대한 나의 책임의식을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취할 자세
를 써보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므로 하나
님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 공동체 운영전반에 대하여(교회와 구역, 가정에서)

· 지체들의 영적, 육적 복리에 대하여

· 지체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8 horizontal rows. Each row is composed of three dotted lines: a top line, a middle line, and a bottom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 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